

朴 1심 27일 구형할듯...대장정 마무리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구형량이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다음 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기한 만 기일은 오는 4월6일이다.

재판부는 내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26일과 27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틀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10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공판 기일을 잡아 2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어 기일을 하루씩 앞당기기로 했다.

결심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도 함께 밝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진술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도 직접 최종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4개월째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소요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62)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결심 공판이 열린 후 6주 뒤인 지난달 26일 선고 기일이 잡혔었다. 이후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3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최씨는 2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25일, 지난 1일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씨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검찰 구형 진술...박측 최후 변론 3월 중 선고 예상...4월 가능성도 재판부, 최순실 판결문 증거 채택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이었다.

재판부가 최씨의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

통령의 구형은 최씨 구형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9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뉴스스



입학선서하는 제 62기 국간사생도들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간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국간사관학교 제 62기 신입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간호사 10명중 7명 "인권침해 경험"...4명이상 괴롭힘 당해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727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9.5%로 10명 중 7명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원하지 않는 근무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한 경우 순이었다.

생리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임신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많았다.

'예'라고 응답한 답변 중에는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 시 불이익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랜서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범주는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의 순이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했다.

뉴스스

검찰, 여수 상포지구 40대 업자 2명 지명수배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검거 전담팀을 편성했다.

20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펼쳤다.

검찰은 개발업자인 A사 대표 피의자 김 모(48) 씨, 이사 곽 모(40) 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했으나 모두 출석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들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급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검거전담팀을 편성해 이들의 소재를 다각적으로 추적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새벽시간 금은방 턴 10대 붙잡혀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범행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새벽에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A(18)군을 특수경찰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울산시 동구 대송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팔찌와 메달 등 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당시 벽돌로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로를 파악, 범행 7시간만인 오전 10시30분께 잡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성매매 강요' 여중생 괴롭힌 10명 검거

여중생을 데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구속되고 범행에 가담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폭행 등의 혐의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최모(16)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중생 A양의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을 불러 나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다른 여중생 B양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과 B양은 병원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범행 이유와 추가 피해 대상 여부에 대해 수

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머지않아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낮에 주택 침입해 금품 턴 60대 구속

잠금장치가 허술한 주택을 노려 금품을 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2시에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의 금품(시가 1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파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사건 신고 접수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서 "누범기간인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스

